

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

## 예비자 교리 교안 15 (2 월 25 일)

### 고해성사와 견진성사

- ◆ 부활하신 날 저녁,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. “성령을 받아라.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,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”(요한 20,22-23).
- ◆ 세례 받은 다음에 지은 죄의 용서는 회개의 성사, 고백 성사, 참회의 성사, 화해 성사라고 불리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주어진다.
- ◆ 죄를 짓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예와 그분의 사랑을 손상하는 것이며,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자신의 인간적 품위와, 그리스도인이 그 살아 있는 돌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영적 선익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.
- ◆ 고해성사는 고백자의 세 가지 행위와 사제의 사죄로써 이루어진다. 고백자의 세 가지 행위는 통회, 사제에게 죄를 말하는 고백, 그리고 보속하겠다는 결심과 그 이행이다.
- ◆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양심을 성찰해서 기억해 낸, 아직 고백하지 않은 모든 대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. 소죄의 고백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, 교회는 이를 강력하게 권고한다.
- ◆ 고해 사제는 고백자에게 죄로 생긴 손해를 갚고,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생활 태도를 다시 갖추기 위한 ‘보상’이나 ‘속죄’를 하도록 권한다.
- ◆ 교회 권위로부터 사죄권을 받은 사제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.
- ◆ 개인적으로 대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사죄를 받는 개별 고백만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이다.
- ◆ 신자들은 대사로서 자신과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, 죄의 결과인 잠벌을 사면받을 수 있다.
- ◆ 한국 천주교회는 1년에 두 번 부활과 성탄 때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규정한다.
- ◆ “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,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.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.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,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.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”(사도 8,14-17).
  
- ◆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한다. 견진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,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며, 교회와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, 교회의 사명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하며, 실천이 따르는 말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언하도록 돕는 성사이다.
- ◆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견진성사도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영적인 표시, 곧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겨 준다. 그러므로 견진성사는 일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.

- ◆ 동방 교회에서는 견진성사가 세례 직후에 집전되고 바로 성찬례 참여가 이어진다. 이 전통은 그리스도교 입문이 되는 이 세 가지 성사의 단일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. 라틴 교회에서는 이 성사를 사리를 분별할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베풀며, 일반적으로 주교만이 거행한다. 주교의 견진 집전은 이 성사가 교회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것을 나타낸다.
- ◆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견진 후보자들은 신앙을 고백해야 하며, 은총의 상태에 있고, 성사를 받을 의향이 있으며, 교회 공동체와 현세적인 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.
- ◆ 견진성사의 핵심 예식은 집전자의 안수와,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의 이마에(동방 교회에서는 다른 감각 기관들에도) 축성 성유를 바르는 것인데, 로마 예법에서는 “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.”라고 하며, 비잔틴 예법에서는 “성령 특은의 인호.”라고 말한다.
- ◆ 견진성사가 세례성사와 분리되어 거행될 때에는 무엇보다도 세례 서약 갱신으로 세례성사와 이어진 유대를 표현한다. 성찬례 중에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.

### **세례, 성체, 고해, 견진성사의 실례**

- ◆ 고해성사 (십자성호를 그으며)
  -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. 아멘.
  - 고해한 지 (몇 일, 몇 주일, 몇 달)됩니다.  
알아낸 죄를 낱알이 고백한다. 죄를 고백한 다음
  -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.  
사제는 고백자에게 훈계하고 보속을 준다.  
필요하다면 고백자에게 통회기도를 바치게 할 수 있다.  
제는 고백자 머리 위에 두 손이나 오른손을 펴 들고 사죄경을 외운다.

✦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 ..... 나도 성부와 ✦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
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.

  - 아멘.
- ◆ 세례성사 - 구마와 신앙고백을 하고, 세례성유와 크리스마스성유를 바르고 물로 이마를 씻는  
예식과 흰포를 머리에 쓰는 예식과 초를 받는 예식 등이 이어진다. 추후 세례 전 연습 필요.
- ◆ 성체성사 - 미사 중에 성체를 받아 모시는 연습. 자기 바로 앞에 신자가 성체를 받을 때  
뒤에서 절을 하고 사제 앞에 나아가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밑으로(오른손잡이)하여 성체를  
받고 옆으로 한발짝 나아가 성체를 집어 입으로 모신 후 합장하여 자기 자리에 돌아감
- ◆ 견진성사 - 주교님에게 나아가 이마에 성령특은의 날인(성유)을 받고 깨어 살라는 의미로 살짝  
볼에 손을 가져가 건드리는 예식으로 이루어짐.... 세례와 마찬가지로 대부대모를 둘 또한  
견진명을 따로 세례명과 바꾸어서 받아도 됨. 보통은 유지. 견진준비로 간단한 견진교리를  
받아야 함.